

# 수 학 보 고 서

[파견자] 소 속 경영학과(항공운항계열) 학 번 21621887 성 명 박창준

[파견기간] 2017 년 2 학기 ~ 2018년 1 학기

[파견대학] 국가명 미국 대학명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

안녕하세요 ^^ 저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에 방문학생으로 파견된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선발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학기에 California State University로 파견되는 인원은 모두 방문학생으로 선발되지만 봄 학기 때 파견되는 인원 중 한명은 교환학생으로 선발됩니다. 파견기간 동안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와 영남대학교 두 곳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교환학생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영남대학교의 등록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문학생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등록금은 지원되지 않고 영남대학교의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선발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상경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해외파견프로그램 공지사항에서 과거 모집요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발기준에는 전 학년 평균평점, 공인 외국어 성적, 영어면접 및 프리젠테이션을 반영하는데, 가장 반영비율이 높은 것이 영어면접 및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영어면접 및 프리젠테이션에서 유학생활동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들과 자신만의 목표, 꼭 가고 싶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영비율이 가장 큰 만큼 열심히 준비하시면 평균학점이나 외국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면접이나 PPT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보고서 맨 마지막에 적혀있는 제 메일로 물어봐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출국 전 준비사항 >

저는 가을학기 파견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봄 학기에 파견되는 분들은 날짜만 조금 다를 뿐 전반적인 진행과정은 같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방문학생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신 분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면접을 보시고 최종합격을 통보받으시면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IBP(International Business Program) 담당자인 **Crystal Cui**라는 분이 메일로 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IBP가 무엇인지는 **오리엔테이션**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출국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Crystal Cui에게 메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Fresno와 한국 사이에는 16시간의 시차가 존재하고, 한국 시간에서 16시간을 빼면 Fresno의 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답변을 받아야 하는 메일의 경우 새벽에 메일을 보내시면 금방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답을 보내지 않으므로 Fresno 기준으로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종합격을 하시게 되면 가장먼저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URL이 담긴 메일을 받게 됩니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지원서를 작성해 나가면 되고 **지원서에 이메일을 적는 란에는 자주 쓰는 이메일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출국 전까지 모든 안내는 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오고 교환학생 포털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메일 어플(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 Gmail 등)을 다운 받으셔서 연동해 두시면 바로바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입니다. 지원서를 모두 작성하신 후 며칠 뒤 안내메일이 오면 영문 성적증명서, 공인 영어시험성적표, 통장잔고증명서, 여권사본을 Crystal Cui에게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4월쯤 되면 수강신청을 하라는 안내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선수강과목(prerequisite)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B라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선수강과목인 A라는 과목을 반드시 수강했어야 합니다. 몇몇 강의들은 선수강과목의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더라도 Crystal Cui가 성적증명서를 보고 판단했을 때 선수강과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수강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를 2~3개 정도 만들어서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학생의 경우 수강신청은 한국에서처럼 선착순으로 클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하고 싶은 강의들을 교환학생 포털시스템에 적어 놓으면 Crystal Cui가 해당 과목 교수님으로부터 Permission Number를 대신 받아줍니다. 그러면 미국에 오셔서 수업첫날에 IBP Office를 찾아가서 Permission Number를 입력하고 수강신청을 하신 후에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 수업첫날 아침 9시부터 수업이 있으시다면 수업 다 끝나시고 IBP Office에 가

셔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수강하고 싶은 강의들을 1지망과 2지망으로 나누어서 기재하게 되어있을 것 입니다. 2지망 강의들은 만약 1지망 강의가 수강이 불가능할 때 대체하실 강의들을 적어두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1지망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포털시스템에 수강하고 싶은 강의를 입력하기 전에 꼭 Crystal에게 이메일로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포털시스템에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Crystal에게 확인을 안 하셨다면 1지망으로 적어놓은 강의들을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털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하니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Crystal 에게 이메일로 수정해달라고 부탁하셔야 합니다. 학점은 총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9학점은 꼭 경영에 관련된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12학점을 초과해서 수강하실 경우 1학점당 약 \$295(한화 약 33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경영과 관련되지 않은 강의는 수강할 수는 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수업 첫날 교수님을 찾아가 직접 Permission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수강과목을 선택하실 때에는 영남대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줄지 교양학점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보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URP시스템에 있는 교육과정조회를 참고하면서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가을학기에 수강한 강의는 Purchasing and Materials Management,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Business Communicatio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로 총 5과목(16학점)입니다. **수강신청을 하고 난 뒤 수강정정기간에 정정을 하게 되면 과목 당 약 \$300(한화 약 34만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하실 때 수업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J-1 비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5월 중순 쯤 되면 학교로 DS-2019을 포함한 입학관련 자료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DS-2019은 J-1 비자를 발급받는데 꼭 필요한 서류이고 나중에 입국심사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DS-2019은 한국에서 출발하실 때 수하물에 넣어두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시다가 미국공항에서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설명회가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J-1 비자발급을 검색해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입학과 관련된 자료들 중 예방접종과 결핵검사 관련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결핵검사와 예방접종을 안 하고 오시면 미국에서 따로 받으셔야 하

는데 비용도 있고 번거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하시고 예방접종 기록표랑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하나로 의료재단 강남센터(<http://www.hanaromf.com/>)에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로 의료재단에는 유학 검진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어떤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병원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 < 파견학교(위치, 교통편) 소개 및 비용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는 캘리포니아의 중심부인 Fresno 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Fresno는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고 더운 편이며 겨울에도 많이 춥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틀어져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오티에 참석하시거나 강의를 들으러 가실 때 걸칠 수 있는 옷을 준비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Fresno Yosemite International Airport가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시고 도착날짜와 시간, 비행기편명 등이 결정되면 학교에 Airport Pickup Service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irport Pickup Service를 신청하면 학교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올 것입니다. 만약 Airport Pickup Service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택시를 이용해서 학교까지 오시면 됩니다.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안전하게 오시려면 Uber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Uber는 한국의 카카오택시 같은 어플로 목적지를 설정하면 대략의 택시요금도 계산되고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택시요금이 빠져나가 매우 편리합니다. Uber 택시를 기준으로 약 13달러면 공항에서 학교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Fresno로 오실 때는 최소 한번은 비행기를 갈아타셔야 합니다. 스카이스캐너, 와이페이모어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비행기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올 때는 United 항공을 이용했는데(인천 - 샌프란시스코 - 프레즈노), United 항공은 출발 지연이나 연착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환승하실 때에는 수하물을 모두 찾았다가 국내선 비행기로 다시 부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환승하는 표를 사셨다면 중간에 환승하는 시간이 넉넉한(최소 2시간 이상) 표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항공사나 공항을 이용하시더라도 출발하시기 전에 환승절차를 검색해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에 관한 사항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등록금은 12학점을 등록했을 때 기준으로 한 학기에 \$3995(한화 약 450만원)입니다. 기숙사는 Community Double이라고 하는 영남대학교 기숙사 2인 1실처럼 생긴 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ommunity Double의 1년 기숙사비는 \$4875(한화 약 5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식비인데, 기숙사 식당 이용에는 2가지 Plan이 있습니다. **기숙사** 부분에서 각 Plan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Gold Plan을 기준으로 1년 기숙사 식비는 \$3907(한화 약 4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은 매학기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보험료는 한 학기에 약 \$670(한화 약 75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1년 파견을 기준으로 필요한 금액**은 대략 학비 총 900만원, 기숙사비 550만원, 기숙사 식비 445만원, 보험료 150만원으로 **총 2045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년 생활비, 항공권, 교과서 구매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학비 부분이 조금 저렴해지실 것입니다.

### < 오리엔테이션 >

한국에서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등록절차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오리엔테이션 날짜와 중요 일정이 안내되어있는 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 하루 전에 학교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기숙사에 일찍 도착하게 되면 Early Arrival Form을 미리 작성해서 기숙사 이메일로 보내셔야 합니다.** 양식은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Check-in with ISSP 라는 오티를 진행하는데 이날 **여권이란 DS-2019을 들고** 오티장소로 가면 인적사항을 적고 예방접종기록표도 내고 학교 투어도 하고 학생증도 만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은 일반 교환학생이 아니라 IBP(International Business Program)소속 학생입니다.** IBP 학생들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를 졸업한 뒤 학위를 받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Non-degree seeking student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교환학생들과 오티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IBP 교환학생이라고 이야기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교환학생 명단에 이름이 없거나 학생증을 만드는데 돈을 내라고 하는 등 주변에 다른 학생들은 안하는데 나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IBP 교환학생이라고 설명한 뒤에 안내해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 날에는 ISSP Orientation 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안전에 관한 내용과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루 종일 할 것입니다. 대부분 California State University를 졸업하려는 교환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이므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을 필요는 없지만 동아리 소개시간도 있고 학교생활에 대해 들을만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BP Orientation입니다. Crystal Cui가 수업을 등록하는 방법, IBP Field Trip, 주의사항 등 IBP 소속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IBP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모두 다 교환학생들끼리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낯선 환경에 혼자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긍정적으로 반응해줄 것입니다.

### < 교육과정 및 수업내용 >

수업내용은 제가 수강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같은 이름의 과목을 수강하시더라도 교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퀴즈 개수, 과제 개수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Purchasing and Materials Management - Keith Story (MKTG 126)

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단순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 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만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시설유지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 전반적인 경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공급사슬, 가치사슬, 아웃소싱, 해외생산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며 생산운영관리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시험은 4번을 보고 사례를 보고 조별로 분석하고 발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 ·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 Timothy Stearns (ENTR 81)

기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산업 트렌드를 읽는 안목을 길러주는 과목입니다.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수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grtep.com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일주일에 한번 3시간짜리 수업이고, 모둠 활동이 많은 수업입니다. 모둠 활동이 조금 많아서 부담스러울수도 있지만 그만큼 친구를 사귄 기회도 많으니 한번 수강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가 자주 있고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퀴즈도 쉬운 편입니다.

####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Jorge Cruz (IS 130)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IT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정확한 정보를 가장 먼저 얻어 투자를 하고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이 오늘날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IT가 요즘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뉴욕에서 오랫동안 회사생활을 하셨고 현재도 IT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현장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으신 분입니다. 매주 퀴즈가 있는데 교과서만 잘 읽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에서 퀴즈가 나옵니다. 또한, 매주 Writing 과제가 있습니다. Writing 과제는 매주 교수님이 교과서에 있는 읽을거리 중 2개를 선정해주시면 그 주제에 대해 내 생각을 200단어 내로 적어가시면 됩니다.

#### · Business Communication - Diane Miniel (BA 105W)

수업 제목 그대로 비즈니스를 할 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주로 보고서를 쓰는 방법,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위주로 배웁니다. 개인과제, 조별과제가 좀 많은 편이고 퀴즈도 자주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혹시 영어 문법이 좀 약하시거나 작문 같은 걸 좋아하지 않으시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수업의 2/3 정도가 쓰기 수업입니다. 쓰기의 비중이 큰 만큼 과제를 하실 때 문법이나 문장부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워두시면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실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들을 배우는 실용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수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 - Jeff Brueggemann (BA 174)

국제경영학을 들어보셨으면 좀 더 수월하게 수업을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화, 현지화, 해외 아웃소싱 등 국제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교수님이 매우 열정적이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수업시간에 실제 현직에 계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도 직장에 계셨을 때 해외를 많이 다니시면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많이 이야기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교과서적인 내용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매우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외에서 온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수업 첫날 출석확인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고향을 물어보시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세계의 흐름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정말 추천 하는 과목입니다. 과제도 별로 없고 수업도 교과서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가르쳐주시고 나머지는 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재로 강의해주십니다.

### < 교내활동 및 교외활동 >

교내활동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추천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동아리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학술통아리의 경우 함께 공부도 하고 현장학습을 나가기도 합니다. 오셔서 관심 있는 동아리에 꼭 가입하셔서 친구도 많이 만드시고 전공지식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이곳에서는 동아리 가입비가 있습니다. 주로 \$30~\$60 정도고 더 비싼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ISSP(국제처)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로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합니다. 이 업무는 무엇보다 본인이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오셔서 바로 하시기보다는 한 학기 생활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학교 시스템에 익숙해지신 후 그 다음 학기에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학교 근처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음식도 나눠먹고 이야기도 하는 교외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동아리에서 현장학습을 가거나 IBP에서 함께 가는 현장학습 같은 걸 제외하고는 딱히 교외에서 하실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J-1비자 소지자는 법적으로 알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곳에서 누군가가 알바자리를 소개해주더라도 **절 때 캠퍼스 밖에서 알바를 하시면 안 됩니다.** J-1비자를 가지고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혹시라도 돈이나 어떤 혜택을 받고 일을 하신



사실이 발각되면 강제 추방되실 수도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S-2019에 적혀있는 주 근무지 주소(학교 주소가 적혀있을 것입니다) 이외의 곳에서 알바를 하게 되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 된다고 합니다. 교내에서 알바를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담당자에게 J-1 비자로 일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기숙사 >

학교에서 입학승인을 받게 되면 기숙사와 관련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기숙사 말고도 학교 주변에 있는 자취방에 대한 정보도 보내주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숙사가 안전하고 친구를 사귀기에도 좋기 때문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기숙사 홈페이지와 자취방에 대한 정보가 있는 홈페이지의 URL입니다.

On-campus housing, please visit <http://www.universitycourtyard.org/>

Off-campus housing, please visit <https://fresno.och101.com/>

There is a newer apartment near the campus, please visit <http://palazzofresno.com/>

기숙사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많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 함께 선발되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도와가면서 작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는 크게 Community Style 과 Suite Style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Community Style은 영남대학교 기숙사와 비슷한 구조로 긴 복도에 방들이 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Suite Style은 방마다 거실과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Community의 경우 단점은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는 점과 방이 Suite보다는 작다는 점이고 Suite의 단점은 화장실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직접 청소를 해야 하고 같은 층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을 고르시면 됩니다. 방 구조와 거주하는 인원수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첫날 기숙사에 도착하시면 Atrium이라는 곳에서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Atrium은 기숙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24시간 운영됩니다. 출국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Atrium 주소로 택배를 보내시면 체크인하실 때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불 같이 부피가 커서 들고 오시기 부담스러운 짐들은

택배로 부치시면 됩니다. Atrium에서 택배를 받아주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택배를 보내시기 전에 기숙사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Atrium에서 청소기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Community 기숙사는 건물 1층에는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고 Suite는 각 층의 끝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기는 \$1.5, 건조기는 \$1를 지불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식비는 2가지 Plan(Platinum, Gold)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Platinum Plan**은 무제한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학기당 학생증에 \$150를 충전해 줍니다. 또한, The Bucket Grill & Pub 이라고 하는 캠퍼스 내 식당에서 일주일에 한번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증에 충전되어 있는 돈으로는 캠퍼스 내에 있는 다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Gold Plan**은 Platinum과 마찬가지로 학기당 학생증에 \$150를 충전해주지만 기숙사 식당 이용 횟수가 일주일에 10회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주에 10회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횟수는 소멸되지 않고 다음 주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3회가 남았다면 다음 주에는 10회 + 3회가 되어 총 13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ilver Plan도 있는데 이건 지난 학기에 기숙사에 거주했던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저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밥을 사먹을 때가 많았고 기숙사 식당에서는 가끔 저녁만 먹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Gold Plan을 신청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Plan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해보시면서 나중에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숙사 식당은 뷔페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드시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뷔페처럼 음식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는 않지만 있어야 하는 것들은 있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메뉴가 조금씩 바뀝니다. 메뉴는 주로 양식이고 밥도 있기는 하나 한국에서 먹던 밥과는 많이 다릅니다.

Rent	Academic Year	Fall Semester	Spring Semester
Suite 2 Triple Room	4,277.00	2,184.00	2,093.00
Community Double	4,875.00	2,489.00	2,386.00
Suite 3 Double Room	5,561.00	2,840.00	2,721.00
Suite 2 Double Room	5,803.00	2,963.00	2,840.00
Suite 1 Double Room	6,174.00	3,153.00	3,021.00
Suite Small Single	6,428.00	3,282.00	3,146.00
Community Large Single	6,892.00	3,519.00	3,373.00
Suite Large Single	7,360.00	3,758.00	3,602.00

  

Meals	Academic Year	Fall Semester	Spring Semester
Silver Meal Plan	2,614.00	1,324.00	1,290.00
Gold Meal Plan	3,907.00	1,978.00	1,929.00
Platinum Meal Plan	4,213.00	2,133.00	2,080.00

  

Payment Plan Service Fee	Academic Year	Spring Only
One Payment Plan	0.00	0.00
Two Payment Plan	10.00	10.00
Financial Aid Plan	70.00	30.00
Monthly Payment Plan	90.00	30.00

Academic Year칸에 있는 금액이 1년 치 기숙사 비용입니다. 기숙사 비와 식비는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을 하시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Payment Plan Service Fee 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분납에 따른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 내시면 \$10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매달 조금씩 납부하시면 \$90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 < 소소한 팁 >

★ 수강신청을 하실 때 교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교수님 이름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교수님들에 대한 평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ratemyprofessors.com/>

<https://csufresno.uloop.com/professors/>

★ 첫 수업시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수업에 참관을 하러 들어옵니다. 대부분 교수님에게 Permission Number를 받아서 수강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거나 수강신청대기명단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첫날 늦게 들어오시면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로 만들어진 자리(교수님 옆자리, 교실 구석 등)에 앉아서 수업을 듣거나 서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처럼 교수님이 큰 강의실로 옮겨주시거나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는 강의 시작 최소 10~15분 전에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한국과 달리 첫날이라고 일찍 끝내주시는 교수님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 미국은 110V~120V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실 때 돼지코를 챙겨 오셔야 전자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압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가지고 오신 전자제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지에서 오셔서 하나 구매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충전기 종류는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학생은 버스비가 무제한으로 무료입니다. 한국 버스와 다르게 카드를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학생증을 긁으시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버스비는 \$1.25입니다. 돈을 거슬러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1.25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기숙사 방에는 개인금고가 하나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98를 지불하면 금고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금고사용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Atrium에서 Safe Opt out form을 작성하면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 Fresno는 햇살이 매우 강하고 건조한 곳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캠퍼스 내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때 꼭 선글라스를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선크림도 필수로 가지고 오시고, 수분크림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핸드폰을 이용하시려면 유심칩을 구매하셔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Uber같은 어플이나 지도어플을 사용하시려면 당장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마텔에서 유심칩을 구매해서 왔는데 여러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유심칩을 구매해서 오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팁문화가 존재합니다. 팁은 총금액의 10%정도를 지불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팁을 더 주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10%정도를 최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출국 전에 한국에서 안내메일을 받다보면 Fresno State E-mail account라는 것을 만들라고 할 것입니다. ~ @mail.fresnostate.edu 형식의 학교 메일을 하나 만들게 될 텐데 이 계정은 매우 중요한 계정입니다. 이 계정으로 강의지원시스템과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하고 와이파이 연결을 할 때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교과서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보통 교과서들이 한권에 \$100 ~ \$200 정도이고 비싼 교과서들은 한권에 \$200 ~ \$50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구매하는 것 보다 Amazon이나 Chegg같은 사이트에서 빌리시면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한 학기동안 교과서를 빌리는 비용은 약 \$20 ~ \$40 정도이고 아마존에서는 학생의 경우 무료로 이틀 안에 배송도 해줍니다. 교내 서점에서도 교과서를 빌릴 수 있으므로 이 두 사이트와 교내서점에서 교과서를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신후 최종적으로 교과서를 못 구하셨을 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amazon.com/>

<http://www.chegg.com/>

★ 미국에서는 지나다니다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미소를 짓거나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기숙사 내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친구들인 만큼 자주 보게 될 텐데 인사를 하다보면 어느새 같이 밥도 먹고 수도도 떠는 친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서 해외 교환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선발이 되면 미국의 경우 70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꼭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요강을 참고해주세요. 지원 자격 중 건강보험고지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foundation.miraeasset.com/front/scholarship/schForeign.do>

★ 캠퍼스 근처에 있는 아파트나 집에는 대부분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캠퍼스 내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고 순찰도 자주 돕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전화처럼 생긴 비상전화기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곳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Fresno는 그렇게 안전한 도시는 아닙니다.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부득이 하게 해가 지고 어딘가를 가야 할 경우 꼭 친구들과 함께 다녀야 하고 되도록 해가 지기 전에 불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숙사는 한국 기숙사와 달리 통금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Bulldog Stadium이라고 학교 캠퍼스 끝 쪽에 경기장이 하나 있는데 그 근처가 밤에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 < 학교 시설 >

### · Joyal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때 오실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증도 만들고 학교에 돈을 낼 일이 있으면 이곳 1층에 있는 South Lobby에 가서서 돈을 내고 해당 부서에 영수증을 가져다주면 됩니다. 이 건물 2층에는 ISSP(국제교류팀)이 있습니다.

#### · Henry Madden Library

학교 도서관입니다. 굉장히 크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곳 입니다. 우리나라 도서관과 다르게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밥을 먹는 사람, 조별과제를 하는 사람, 전화를 하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Quiet Area라고 따로 조용한 공간이 있는데,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이곳에 가시면 됩니다. 이곳 지하에는 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너무 어렵다면 이곳에 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해당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어떤 걸 공부해야하는지, 퀴즈와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등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 Student Recreation Center , Save Mart Center

이 두 건물은 캠퍼스 가장 끝에 위치해있으며 기숙사에서 걸어서 약 15~20분 정도 걸립니다. Student Recreation Center에는 큰 헬스장이 있고 구기 종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학생증만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고 운동기구도 빌릴 수 있습니다. 개인자물쇠를 가져가시면 락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샤워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PEC라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작은 강당같이 생긴 강의실인데 혹시 수강신청하신 과목의 강의실이 PEC라고 적혀있으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Save Mart Center에서는 주말에 운동경기가 열립니다. 주로 대학 간의 운동경기가 펼쳐지고 CSU 학생들은 무료로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WWE, NBA 같은 운동경기가 펼쳐지기도 하고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Leon S. Peters Business Building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시면서 가장 자주 가게 될 건물입니다. CSU의 상경대학교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IBP 사무실이 있습니다. 경영수업을 들으신다면 거의 이곳에서 수업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곳 1층에 있는 IBP 사무실에 찾아가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University Student Union

이 건물 지하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Subway와 Panda Express라고 하는 중국음식점과 Taco shop이라는 타코를 파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과 Kennel bookstore 사이에 볼링장 입구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당구장도 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초반에 이 건물 앞에 오시면 동아리 부스가 줄지어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동아리가 있으시면 해당 부스를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두고 오시면 됩니다.

### · Kennel Bookstore

학교 서점입니다. 1층에 들어서면 학교 로고와 이름이 새겨진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굿즈들이 있으니 기념으로 몇 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로고가 새겨진 옷도 팔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학교 로고가 새겨진 옷을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2층에서는 교과서를 팔고 지하 1층에는 애플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CSU가 애플 인증 캠퍼스여서 도서관에도 애플 제품이 많고 서점에서도 애플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험을 보실 때 Scantron 이라고 하는 OMR카드를 직접 구매해서 가져야 하는데 이것도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첫날 필요한 사이즈와 매수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교수님께 설명을 듣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 < 주변환경 >

### · Walmart

차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Walmart가 있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시고 필요한 생필품이 있으시면 이곳에 오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한국 마트처럼 웬만한건 다 있고 마트 크기도 꽤 큼니다. Uber택시를 이용하시면 6~7달러면 오실 수 있고, 버스를 타시려면 학교 건너편에서 9번 버스나 28번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 · 99 cents only stores

우리나라 다이소같은 매장입니다. 월마트보다 조금 더 가까운데 있고 크기는 꽤 큼니다. 음식부터 학용품, 장식, 욕실용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굳이 월마트까지 가서 사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곳에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7 Eleven

학교에서 길을 건너면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한국 세븐일레븐이랑 비슷합니다. 혹시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곳에 있는 씨티은행 ATM에서 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 · Wendy' s , Popeyes, McDonald' s , Sushi and Pops, Dog house grill

학교 주변에 길만 건너시면 다양한 패스트푸드점과 식당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이 나시면 방문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Sushi N Pops은 Bulldog Stadium 근처에 있는 식당인데 한국음식도 판매합니다. 한국음식이 드시고 싶으실 때 한 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Maya Cinemas Fresno 16

Save Mart Center에서 월마트 가는 방향으로 길을 건너시고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큰 영화관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 이곳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꽤 크고 햄버거 피자 같은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 Fashion Fair

학교 앞에서 9번이나 28번을 타고 가시면 15분정도 가시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옷가게들이 있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옷들이 싼 편이고 한국에서 사면 비싼 Abercrombie & Fitch 도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애플스토어, MAC 화장품, FootLocker, 미용실 등 다양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 < 후배에게 남기고 싶은 말 >

저도 처음에 유학준비를 하면서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모르는 게 많아서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려서 걱정거리도 좀 덜어드리고 미국에서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욕심만 너무 앞서서 두서없이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읽어보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로 물어봐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로 유학을 간다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말로 들어도 어려운 대학 강의를 영어로 듣고, 매주 쏟아지는 과제를 해결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유학을 온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게 되고 전공과목을 심도



있게 배웠다는 차원의 배움이 아닌 스스로가 성숙해지고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는 차원의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접해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대학수업이었고 진정한 대학수업다운 수업을 듣는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단순히 교과서만 가지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실생활에 응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 같아 매우 흥미로웠고 제가 수강신청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두 매우 열정적이어서 더욱 즐거운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을 나왔을 때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유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얻어 가시는 결과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이곳에 오시면 단순히 영어실력이 느는 차원의 배움만이 아닌 스스로 독립하는 방법,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 같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부터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안목도 기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한 시간이 절 때 헛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국의 대학 강의를 오셔서 직접 몸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강의에도 참여해보시고 질문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를 보고 외운 것들은 한학기만 지나도 모두 까먹지만 이곳에서 교수님들께 들은 실질적인 조언들과 현장의 이야기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입니다.

이곳에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배워보고 싶었고 관심이 있었거나 도전해보고 싶었던 경영학 과목들을 고르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적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F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공부를 적당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성적에 대한 걱정보다는 꼭 배우고 싶었던 분야나 잘 모르는데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에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경영학의 매력을 느끼실 것이고, 경영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내가 앞으로 집중해서 전공하고 싶은 분야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에서의 유학생활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수학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onio306@naver.com](mailto:antonio306@naver.com) →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